부실 · 부적격 업체 퇴출이 건설산업 선진화의 ‘ 첫걸음 ’

- 실태조사결과일반의21.5%가등록기준미달, 등록기준실질심사강화키로 -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1990년대에는건설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할만큼큰폭으로성장했다. 이와같은 성장은 건설 투자 규모나 건설업체 수에서 도확인된다.

1991년 약 54조원 규모이던 건설 투자액이 2008년에는약185조원으로2.4배정도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 수는 1991년 약 7,000개사에서 2008년에는 5만 6,000여 개사로약7배증가하였다. 주목할것은건설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건설업체 수의 증가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점이다. 건설업체수가큰폭으로 증가하면서개별업체가수주할수있는양은줄어들고있으며이에따라업체간경쟁이더욱심화되고있는 것이다.

실력과 경험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물론업체간경쟁촉진은더낮은가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측면이있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효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 능력과 기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둘째, 건설업체간 담합이나 뇌물 등 부정한 방법이 아닌 실력과 경험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이는시험을보는데시험볼자격이없는 사람이 응시하거나, 시험보는중에부정한

건설 투자 규모와 건설업체 수

행위를하는경우에그시험을무효로하고, 응시자격을제한하는것과같다. 공부를충분히한자격 있는사람이공정하게시험을 친결과라야그결과를신뢰할수있고시험의취지에맞는우수한학생을선발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건설산업이 다른 산업분야, 나아가다른국가건설산업과겨룰수있는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페이퍼컴퍼니등부적격업체의퇴출과건설업체간공정경쟁이전제되어야한다.

부실 · 부적격업체의 폐해 심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적격 업체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킨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업체 수가 증가할수록 경영 능력이나 기술 능력이 없는부적격업체에대한발주자의역(逆)선택(adverse selection) 가능성이증가하고, 이에따라부적격업체나페이퍼컴퍼니와같은 부실 업체가 오히려 영업을 확장하면서 견실한업체가시장에서퇴출되는불합리한 결과가초래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부실 · 부적격업체의경우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생명이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수주 이익만을 노리는 페이퍼 컴퍼니는 중간 브로커 역할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사의 생산성은 감소하고공사비용은상승시키는문제점을야기한다.

따라서 부실 · 부적격 업체의 문제는 단순히발주자의 역선택 문제뿐만아니라, 산업기반자체가약화될수있다는점에서그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부실 · 부적격 업체가시장진입을반복하게되는악순환이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부적격업체의시장 퇴출은매우시급한실정이다.

‘ 운찰제 ’요소가 부실 업체 양산

건설업체수는지난20년간연평균 13% 증가해왔다. 이는건설시장이양적으로크게 성장한 측면도있지만, 수주 산업이라는 건설산업의 특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의‘ 운

찰제(運札制) 적요소는건설업체수가증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보유한 건설업체 등록 면허가 많을수록 낙찰 확률도 증가하므로 부적격 ·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이 지속되고있는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發 금융위기가 전 세계실물경제의침체로확산되면서우리건설시장의 성장이 위축되고, 이에따라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 기업의 퇴출이 증가했다고볼수있다. 특히민간에서발주한건축분야를중심으로 두자릿수감소세를보이고있어이러한한계기업의퇴출은 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일반 · 전문 전체의 14.5%가 부적격

부실 건설업체를 시장 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퇴출시키기위해서는발주자가견실한건설업체를선택할수 있도록하는입찰제도의개선과함께그건설공사에가장적합한 건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발주자의 역량 강화가필요하다. 입찰심사와발주자의역량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은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보고한바있으므로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하고,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협회에 위탁 실시한 부적격업체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이번 부적격 건설업체 실태 조사는 등록된 건설업체 5만 5,820개(종합 1만 2,842개, 전문 4만 2,97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2008년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협회에 실태 조사를 위탁하여 건설업체가제출하는실적신고자료를토대로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 건설업을영위하기 위해 건설업체에요구되는경영능력, 기술능력, 보증 능력 등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건설 수주 증가율 추이

건설수주		2008년	3/4분기	4/4분기	2009년1월	2009년2월
		△9.0	△22.8	△6.5	△15.0	△20.7
발주자별	• 공공	9.1	2.9	5.0	33.8	31.6
	• 민간	△15.8	△32.3	△15.3	△39.7	△46.5
공종별	• 토목	13.9	16.3	50.7	162.6	73.2
	• 건축	△17.4	△37.2	△25.5	△44.8	△58.0
	- 주택	△25.7	△53.3	△28.5	△35.8	△67.4
	- 비주거용	3.0	0.8	△18.8	△60.7	△26.8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약 14.5%인 8,090개업체가『건설산업기본법』에서요구하는 등록 요건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부적격 업체 중 종합건설업체는조사대상 1만 2,842개업체 중 21.5%인 2,759개사, 전문건설업체는조사대상4만 2,978개 업체 중 12.4%인 5,331개 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한것으로조사됐다. 등록기준별위반유형으로는자본금미달2,026개(25.0%), 기술능력미달1,327개(16.4%). 자본금 · 기술능력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자료미제출등기타위반업체가 4,285개(53.0%)로나타났다.

기타위반업체중에는조사결과에서알 수 있듯이 등록 기준 미달뿐 아니라, 아예 소재불명이거나무응답으로일관한업체들이상당수있었다. 이는건설수주만을노리거나수주후에도 브로커역할만을하는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있다. 이들 업체를포함하여기타위반업체중에는최소한의보증능력도없는경우가상당수포함됐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로적발된8,090개업체를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등록 말소등의처분을부과할계획이다.

페이퍼 컴퍼니 퇴출 강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을추진하고있다. 건설산업선진화의기본 방향은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여세계무대에서 마음껏경쟁할수있도록건설산업전과정을효율화하는것이다.

이러한취지를감안할때, 부실업체의퇴출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부실 · 부적격 업체의 퇴출은 견실한 업체에게는 수주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발주자에게는 그 공사에 가장 적합한 건설업체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최종결과물의 품질과안전도를제고한다.

앞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똑똑한 발주자가 능력 있는 건설업체를 선별할수있게되면부적격 · 부실업체는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앞으로매년부적격업체를조사할계획이다. 특히 등록 기준에 대한 실질 심사를더욱강화하여입찰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부실시공우려가높은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백기철
국토해양부건설산업과장